

해방공간에서의 남북한 정보·정치공작 활동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국가의 정보(수집)활동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해방공간에서의 남북의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비공개 부분의 활동을 말한다. 해방직후부터 남북한에서 분단국가가 건국되는 1948년 9월까지의 기간 중 남한을 점령통치한 미군과 남한의 정보관련 단체, 그리고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과 북한정권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밀리에 전개한 정보·정치공작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국가 간의 비밀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대부분 영원히 비밀로 남게 된다. 어떤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기 나라의 정보·정치공작 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미처 파기하지 못하여 그것들이 승전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의 비밀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영원히 비밀의 상자 속에 갇힌다. 국가들이 전개한 비밀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처음부터 ‘비밀리에’ 전개된 것이며, 공작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물적 증거들은 공작 주체들에 의해 대부분 파기된다. 뿐만 아니라 비밀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참여한 비밀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많은 법률적·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국가의 비밀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대부분이 영원한 비밀로 남게 된다.

해방공간에서 전개되었던 남북한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역시 비밀리에 전개되었고, 그에 관한 자료들도 공개된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그 양상의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논문은 남한에서 체포된 북한공작원들의 범죄활동이나, 북한 점령 소련 지휘관들의 비망록, 남한을 점령 통치한 미군정 관련 사료에서 발견된 극소량의 대북 정보활동 자료, 대북 정보활동에 참여했던 남한 인사들의 회고담 등을 토대로 해방공간에서 전개되었던 남북한의 정보·정치공작 활동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서술한 것이다.

어떤 사건의 전체 양상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지칭하는 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다. 이 논문에서 서술된 해방공간의 남북한 정보·정치공작 활동에 관한 서술은 그 ‘빙산의 일각’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서술된 내용은 비록 전체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서술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방공간에서 소련군과 북한 측이 전개한 정보·정치공작 활동과 미군과 남한 측이 전개한 정보·정치공작 활동의 양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2. 소련군과 북한정권의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 개요

소련군은 북한 점령과 동시에 북한에 소련식 비밀경찰제도를 도입했다. 소련군은 북한에 소련 국가안전성(MGB: KGB의 전신) 국제정보국 극동지부 조선파견대를 조직했다.¹⁾ MGB

1)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f Takeover*(Washington D.C.: US

조선과견대는 북한에서 한국계 소련인 및 소련군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북한주민들로 구성된 비밀경찰조직과 첩보조직을 만들었으며, 북한의 각 도, 시, 군까지 그 하부조직을 배치했다. 이들은 소련군정에 반대하는 북한주민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다.²⁾ 이 기구의 간부들이 머지 않아 북한의 내외정보활동부서의 핵심지도부를 형성했으며, 북한의 당(북조선공산당→북조선로동당), 행정부(임시인민위원회→인민위원회), 군(보안간부훈련대대→인민집단군사령부→인민군사령부)의 정보부서들이 모두 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해방공간에서 북한정권의 대남정보·정치공작 활동이 이들에 의해 지휘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해방공간에서 북한의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소련군의 지휘 하에 북한의 당, 행정부, 군의 정보활동 부서들을 통해 전개되었다. 당의 정보활동 부서는 조직부와 조직부 산하의 연락실(5호실)이었고, 행정부의 정보활동 부서는 보안국 정치보위부(임시인민위원회)→내무국 정보처(인민위원회)였으며, 군의 정보활동 부서는 경찰국(보안간부훈련대대→인민집단군사령부)였다.³⁾

북한 집권당의 대남공작 담당 부서인 조직부는 남한에 활동하는 조선공산당→남조선로동당과의 연락관계를 관장하기 위해 1946년 2월 조직부 내에 연락실(5호실)을 설치했다. 당의 조직부장은 한국계 소련인인 허가이였고, 연락실장은 임해였다. 당 연락실은 처음에는 남북당 간의 연락을 주업무로 하다가 점차 남로당의 종파투쟁과 정치활동을 감시하는 일, 남로당 내 파벌투쟁에서 패배하여 당 운영에서 소외되거나 당 밖으로 밀려난 좌익인사들을 관리하는 일, 남한 내 비좌익권 정치인들을 포섭·조종하는 정치공작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조직부 연락실은 1949년 연락부로 승격했다. 당은 또 하나의 대남공작부서로 강동정치학원을 설치했으나 이것은 정보활동이나 정치공작보다는 남한 내 게릴라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⁴⁾

북로당은 대남 정보활동과 정치공작을 위해 몇 개의 특수조직을 남한에 침투시켰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개였다. 하나는 성시백 선으로서, 이 선의 활동영역은 남한의 정부, 정계, 사회단체, 특히 군, 경, 법조계 등에 프락치를 부식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일반첩보공작과 정치인들을 포섭·조종하는 정치공작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선은 황룡 선으로서, 이 선의 활동영역은 군경에 대한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남로당의 활동을 검열 감시하고 남로당 내 파벌활동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⁵⁾

북한 행정부의 대남공작 담당부서는 소련이 북한지역 점령과 함께 설치한 MGB조선과견대의 중심부가 확대·발전된 것이다. MGB조선과견대는 1945년 11월 북조선5도 행정10국이 만들어지면서 보안국 정보공작대로 편입되었으며, 예하에 북한 각도 파견대와 남한 파견대를 설치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보안국 정보공작대는 보안국 정치보위부로 확대되었다. 정치보위부는 형식상으로는 보안국 산하기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기구로 활동했다. 정치보위부의 초대 부장은 한국계 소련인 김파였다. 정치보위부는 북한의 체제보위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대남 정보·정치공작 업무도 수행했다. 정치보위부가 수행한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당시 남로당의 파벌투쟁으로 인해 남로당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p.100-101; 중앙정보부, 『북한대남공작사』 제1권(서울: 중앙정보부, 1972), 95.

2) 중앙정보부, 앞의 책, 128쪽.

3) 위의 책, 64-65쪽의 도표.

4) 위의 책, 100-101, 167-168쪽.

5) 위의 책, 300쪽.

에서 이탈한 분자들을 대량으로 포섭하여 자기들의 세포조직으로 활용, 미군 및 군정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1947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종래의 보안국은 내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정치보위부는 정보처가 되었다. 정보처장에는 1947년 5월 한국계 소련인 방학세가 임명되었다. 방학세는 1945년 북한에 들어오기 전까지 구소련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련방의 비밀경찰요원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내무국 정보처는 그 예하에 정치공작부, 군사정보부, 특수정찰부 등을 설치하여 활동했다. 보안국 정보공작대→보안국 정치보위부→내무국 정보처로 명칭이 변경되어 온 북한 행정부 내의 보안·정보기구도 소련의 비밀경찰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방학세는 북한 전역에서 수집되는 일체의 정보와 남한 및 해외정보 또는 인민군 대열감시상황, 국영공장, 광산, 기업소 등에 대한 제반정보를 김일성과 소련군에 보고했다.⁶⁾

북한군의 대남 정보활동 담당부서인 보안간부훈련대대(후에 인민집단군 사령부→인민군 사령부로 발전) 정찰국은 1946년 8월에 설치되었다. 정찰국은 김일성의 이른바 ‘백두산부대’의 중견층이 장악했다. 정찰국에는 특수정찰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특수정찰부가 대남 정보활동을 수행했다. 특수정찰부의 대남 활동 기본임무는 남한지역의 군사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이었다. 정찰국에서 최초로 납파된 공작원은 이모이다. 이모는 서울에 침투하여 해방전 중국에서 국민당군대의 장교로 활동했던 김일광이란 자를 포섭하여 국방경비대 고급장교들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군사동향을 탐지했고, 김복이란 자를 포섭하여 일반 군사정보를 수집했다.⁷⁾

위에서 설명한 북한의 당, 행정부, 군의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 부서들은 해방공간에서 모두 북한주둔 소련군의 밀착 지휘를 받았다. 특히 당과 행정기관의 보안·정보부서 책임자는 모두 소련군의 북한점령 이후 북한에 입국한 한국계 소련인들이 맡음으로써(당 조직부장 허가이, 행정부의 보안국 정치보위부장 김과, 내무국 정보처장 방학세는 모두가 소련군이 점령과 함께 북한으로 끌어들인 한국계 소련인들이었다) 그들 부서의 활동에 대한 소련군의 장악력은 인간적으로 보장되었다.⁸⁾ 따라서 그들 부서들의 대남 정보·정치공작활동이 소련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의 당, 행정부, 군의 3개 보안·정보부서들은 대남공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했으며, 그들의 대남공작 영역은 윤곽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다. 북로당 조직부 및 연락실(5호실)의 주요 공작방향은 남한 내 좌익진영 인사들과의 연결공작, 북한체제의 우월성 선전, 남한 우익진영 내부의 분열 조장, 주요 인물 포섭 등이었고, 이를 위해 기존의 남로당 조직과는 별도로 북로당 직계의 합법·비합법 정치조직망(남한 좌익진영에서는 이것을 ‘권위 있는 선’이라고 불렀다)을 구축했다. 인민위원회 내무국 정보처의 공작방향은 남한의 정치·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 첩자를 침투시켜 그 조직의 기능을 방해하고, 주요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군정정찰국의 공작방향은 군사적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었다.⁹⁾ 그러나 실제 공작수행과정에서는 각 부서 공작원들의 활동영역이 상호 중복되기도 했다.

해방공간에서 전개되었던 북한의 대남정보·정치공작 활동은 정치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

6) 위의 책, 64-65, 122, 128-129, 165-166쪽의 도표와 169-170쪽의 도표; Erik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Oxford: Berg, 1989), pp. 170, 172. 중앙정보부의 『북한대남 공작사』의 서술 가운데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필자가 적절히 수정하여 반영하였음.

7) 중앙정보부, 앞의 책, 137-138, 171-172쪽.

8) Ree, op. cit., pp. 172-173.

9) 중앙정보부, 앞의 책, 64-65쪽 도표; 이기봉, 「남조선 반동거두 김구를 평양에 불러라: 1948년 남북협상 이면 비화」 중, 『민족정론』 1994년 9월호, 144-145쪽 참고.

고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조종하는 것, 남한에서 폭동과 무장투쟁을 일으키도록 지도·지원하는 것, 단순히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분야의 정보·공작 사례로는 신탁통치 지지 공작, 남한 정치인들의 포섭, 성시백 중심의 정치공작 등을 들 수 있다.

1945년 12월 26일 한반도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 실시계획을 내포한 모스크바협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남북한의 좌우익세력은 다같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실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모스크바협정이 발표된 후 소련은 남북한의 좌익세력에게 모스크바협정(즉, 신탁통치)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 북조선공산당은 이러한 소련의 지시를 실천하기 위해 남한의 조선공산당과 협력하여 남북한에서 찬탁세력 확대를 위한 공작을 전개했다. 그러한 공작의 결과, 남북한에서 모스크바협정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되었다. 모스크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 소련의 입장을 지원하는데 남북한의 좌익 및 남한 중간파를 동원하기 위해 북한정권은 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북한정권은 남한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1946년 1월부터 남한의 정치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다. 북한정권에 포섭된 지도자급 정치인으로는 백남운, 홍명희, 여운형, 김원봉, 박건웅 등을 들 수 있다. 그들 이외에도 강진, 서중석, 이만규, 이극로, 이용, 장권, 손두환, 강순, 권태양, 최백근, 강병찬 등 중하급 정치인들까지 합산하면 북한정권에 포섭된 남한 정치인의 수는 매우 많다.

성시백 중심의 정치공작은 매우 광범했기 때문에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다. 성시백은 1905년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했으며,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대 말에 중국으로 갔으며, 1930년대에 중국공산당원이 되었다. 중국공산당원으로서의 그의 주된 활동은 국민당 통치 지구에서의 지하공작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할 때 성시백의 활동지역과 임시정부의 활동영역이 동일한 탓으로 성시백은 임시정부 사람들과도 교류했다. 성시백은 1946년 2월 북한으로 귀국했다. 성시백은 귀국직후 북조선공산당의 중견간부가 되었고, 곧이어 김일성의 직속 대남공작부서인 5호실(연락실)의 부책임자가 되었다.¹⁰⁾

성시백은 1946년 3월부터 남북한을 오가며 공작활동을 전개했다. 이시기에는 과거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포섭했다. 이범석 밑에서 일하던 정국은, 김규식 계통에서 일하던 박건웅, 조선공산당의 반박헌영파인 서중석의 동생 서완석 등을 포섭했다.¹¹⁾ 성시백은 김일성의 직접 지시에 따라 그해 12월경부터는 서울에 장기 체류하면서 공작활동을 전개했다.

성시백은 남파된 이후 남북교역¹²⁾과 대중국무역을 통해 거액의 공작금을 조달하면서, 매우 광범하게 공작활동을 전개했다. 성시백은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정향명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부유한 무역상으로 행세했다. 그가 서울에 장기체류하던 초기에 전개했던 공작은 박헌영파에 밀려 남로당에 참여하지 않은 인민당의 여운형 추종자들과 신민당의 백남운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중도좌파정당인 근로인민당의 창당을 지원하는 것이었다.¹³⁾

성시백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4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여운형 추종세력과 백

10) 유영구, 「거물간첩 성시백 프로젝트」 상, 『월간중앙』 1992년 6월호, 637-639쪽.

11) 위의 글, 640쪽.

12) 소련군의 38선봉쇄로 인해 남북교역은 공식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북한정권이 교역상대로 인정한 남한상인들과만 남북교역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밀무역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파행적인 남북교역은 1948년 남한의 미군정 당국에 의해 전면 금지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남한 상인들 가운데 남북교역으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

13) 위의 글, 642-644쪽.

남운 추종세력을 묶어서 근로인민당을 결성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백남운, 이영, 장건상)이 출범하게 되었고,¹⁴⁾ 여운형이 1947년 7월 암살당한 후 백남운이 근로인민당의 위원장직을 계승했다. 근민당 창당 후 성시백은 근민당을 중간과 정당들과 연대하도록 만드는 공작을 전개했다. 그러한 공작을 위해 성시백은 근민당 내 우경인물인 최백근과 한독당에서 떨어져 나와 민주한독당을 결성한 권태석을 포섭했다. 최백근과 권태석은 1947년 11월 남북협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당협의회라는 중간과 연합체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¹⁵⁾

성시백은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공작도 전개했다. 그 부분은 이 논문의 4절에서 상술한다.

성시백은 대한민국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인 1950년의 5·30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에 입후보할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여 포섭하는 공작을 전개하다가 선거일을 보름 남겨놓은 1950년 5월 15일 남한 수사당국에 체포되었다. 성시백이 소유한 아지트 중 밝혀진 것만도 20여개에 달했으며, 성시백과 함께 1차로 검거된 인원수만도 112명에 달했다.¹⁶⁾

둘째, 폭동·무장투쟁 공작 사례로는 남한의 폭동 지시·지원과 인민혁명군사건을 들 수 있다. 북한정권은 소련군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해 남한의 폭동에 대해 소련군의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입증된 것은 1946년 9월총파업, 10월 대구 폭동, 1947년 2월의 국대안 반대투쟁 등이다. 소련군 연해주군관구(북한주둔 소련군 제25군이 소속된 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 겸 군사평의회 위원인 테렌치비치 스티코프는 남한에서 9월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 “미군정과 남조선 반동파의 행동을 폭로하는 대중적 시위와 항의를 조직하라”고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담당 지휘관에게 지시하고, 총파업실행에 필요한 공작금을 제공했다. 총파업이 대구에서 10월폭동으로 연결되자 스티코프는 대구폭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작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¹⁷⁾ 스티코프의 이러한 지시는 북한의 소련군 민정사령부→북한정권의 대남공작기구→남한의 조선공산당의 라인을 통해 집행되었다. 국대안반대투쟁을 소련군이 지시했다는 사실은 북한주둔 소련군 민정사령부 교육담당관 니콜라이 그즈노프 소령이 1947년 1월 당시 남로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허헌에게 보낸 지령에 의해 확인된다. 그 지령은 “소비에트연방의 외무위원 몰로토프 동지와 영·불·미 등 세계 4대국 외상들이 장차 모스크바에서 전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회의하게 되었습니다.…붉은 군대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로동당의 계획 밑에서 광범위의 혁명을 일으킬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다음에 기록된 종합적 계획에 의하여 남조선에 있는 전부의 학교에서는 광범한 조직적이며 맹렬한 투쟁을 제1차로 동맹휴학을 합법적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¹⁸⁾라고 지시했다.

북로당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로당 연결 공산주의자들인 강진, 서중석, 김일광 등을 중심으로 숙청 북로당 남조선특별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김일광을 총책으로 하는 남한비합법군사공작체인 청년특별지도부를 조직했다. 김일광은 북한의 군대와 지휘계통을 단일화 한 혁명적 군사조직을 남한 일대에 결성하여 그것으로 남한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혁명적 군사행동을 전개하려고 기도했다. 그것을 위해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침투해 있는 국군준비대(1945년 미군정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강제 해산

14) 유영구, 앞의 글, 645-646쪽.

15) 위의 글, 646-647, 651쪽.

16) 중앙정보부, 앞의 책, 328-331쪽.

17)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발굴자료로 쓴 한국 현대사』(서울: 중앙일보사, 1996), 228-230쪽.

18) 이 지령은 대검찰청수사국, 『좌익사건실록』 제1권(서울: 대검찰청수사국, 1965), 293쪽에 게재되어있다.

된 좌익군사조직) 출신자들을 규합하여 인민혁명군이라는 비밀군사단체를 결성했다. 1948년 2월 하순 주동자 김일광과 이혁기(해산된 국군준비대 대장) 및 그 하부가 체포되어 그들의 기도는 좌절되었다.¹⁹⁾

셋째, 단순 정보수집 공작 사례로는 북한 내무성 정보공작대사건과 북한 대남 정보원사건을 들 수 있다. 북한 내무성 정보공작대사건은 북한 내무성 정보처 직계 대남정보공작대 소속 서완석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건이다. 서완석은 1947년 3월 중순경부터 김연진과 변기학을 하부로 포섭하고, 김과 변으로 하여금 신문사와 통신사의 부장과 기자들을 정보원으로 포섭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한 사회 여러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여 북에 보고해왔다. 1949년 1월 변기학이 체포되고 그를 심문하여 김연진 등 연루자들을 체포했으나 서완석 등은 도주하여 체포하지 못했다.²⁰⁾

북한 대남정보원사건은 북한군 남파 공작원 김기환 중심으로 전개된 사건이다. 북로당 강원도 인제군 선전부장이던 김기환은 북한군 38여단 9대대 정부계장 구제화의 권유로 1946년 9월 남한으로 파견되었다. 김기환은 남한에서 현덕철 엄경선 등을 포섭하여 각종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38선을 넘어 2~3회 남북을 왕래하며 활동하다가 49년 1월 자수했다.²¹⁾

3. 대남 정보·정치공작 사례 분석: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참여 유도공작

1947년 10월 3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남북한 통일정부수립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회합할 것을 제의했다.²²⁾ 이러한 김일성의 제의는 곧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의이며, 이승만 김성수 계열의 ‘극반동세력’을 제외한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북한의 문헌에 의해 해석된다.²³⁾

물론, 이러한 김일성의 남북연석회의(남북협상) 개최 제의는 북한주둔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²⁴⁾ 소련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북연석회의를 제의하도록 한 것은 1947년 9월 한국문제의 유엔총회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이 제시한 한반도문제 해결방안(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1948년 초두 이전에 남북한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한 다음 한국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방안)과 관계가 있다. 소련은 그러한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인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문제를 한국인 스

19) 위의 책, 312-313쪽.

20) 대검찰청수사국, 『좌익사건실록』 제2권, 539-543쪽.

21) 위의 책, 555-558쪽.

22) 정리근,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15쪽.

23) 위의 책, 16-17쪽.

24) 북한정권 수립 시기 김일성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북한주둔 소련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남북협상에 관한 김일성의 행동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협상에 관한 김일성의 행동을 포함한 김일성의 모든 행동이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는 점은 1994년 11월 국내에 보도된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사령관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 소장의 비망록, 레베데프 소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북한주둔 소련군의 정치적 결정을 지휘한 소련군 연해주군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 테렌치비치 스티코프 대장의 비망록, 소련 공산당 정치국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중앙일보> 1994. 11. 15~21에 연재된 레베데프 비망록; <중앙일보> 1995. 5. 9~6. 13에 연재된 스티코프 비망록; Andrei Lankov, "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From Divis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 Th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olitics, 13-15 July 2005, pp. 76-77; 김국후,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울, 2008), 195, 200, 236쪽 참조.

스로가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협상을 제의하도록 했던 것이다.

소련과 김일성이 남북협상을 성사시키려면 남한의 정치세력을 남북협상에 참여시켜야 했다. 김일성이 제안한 남북협상이 어느 정도의 선전효과 내지 실질적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면 남한의 중요한 정치지도자들이면서 이승만의 정부수립노선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적인 과제였다. 김일성은 3개의 공작 루트를 통해 김구와 김규식을 포섭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첫째는 북한정권이 남한에 파견한 공작원들을 통한 포섭공작이었다.

둘째는 일찍부터 북한정권에 포섭된 남한의 중도좌파 정치인들을 통한 포섭공작이다. 북한정권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을 전후하여 조선공산당(후에 남로당)에 참여하지 않은 남한의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으며, 그 중 지도자급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끌어들여 포섭상태를 강화했는데, 김구·김규식을 포섭하는데 이들을 동원했다.

셋째는 한독당 및 중간파 정당과 단체들에 침투해 있는 북로동당 프락치들을 동원한 밑으로부터의 압력행사이다. 김구나 김규식이 지도자로 있는 정당 및 사회단체에 침투해있는 북로동당의 프락치들을 동원하여 그들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각종 회의에서 남북협상을 제의하거나 지지하게 함으로써 그 지도자인 김구·김규식으로 하여금 남북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먼저, 남파 공작원들을 통한 포섭공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 포섭공작에 두각을 나타낸 북한 공작원은 성시백과 서영해이다.

1947년 11월 김일성은 남파공작원 성시백을 직접 만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간의 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구 김규식 등에게 합작의사를 전달하여 남북연석회의 실현에 그들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다.²⁵⁾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성시백은 1947년 초겨울부터 김구와 김규식을 통일전선, 즉 남북 연석회의에 끌어들이는 포섭공작을 전개하게 되었다.²⁶⁾ 성시백은 우선 김구와 김규식의 측근들을 포섭했다. 성시백은 자기의 하부인 서완석과 강병찬을 통해 김규식의 비서실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S와 권태양을 포섭했다. 김규식 밑에서 민족자주연맹의 간부로 일하는 박건웅과 임정계통의 김찬도 성시백선의 핵심인물이었다. 성시백은 김구의 개인비서인 안우생을 포섭했다. 안우생은 김구의 맏며느리인 안미생의 사촌동생이며,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의 아들이다. 김구의 최측근 중의 하나인 엄항섭도 성시백과 연결되었다. 엄항섭의 아들은 남로당원이었다.²⁷⁾ 성시백은 김구와 김규식의 수족과 같은 측근인물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모시는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 참여 쪽으로 유도하도록 만든 것이다. 북한 문헌은 성시백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김구와 인연이 있었고, 김구를 직접 찾아가 남북협상 지지를 설득했고 김일성의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⁸⁾

서영해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정보처가 남파한 공작원이다. 서영해는 과거 상해 임시정부의 파리 주재원으로 파견된 바 있는 인물이었으며, 김구의 측근 중 엄항섭과 가까운 사이였다. 서영해는 엄항섭을 통해 경교장으로 김구를 방문하여 “나는 현재 북조선에서 모기관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한 다음, “김구 주석께서 유엔에 의한 단독선거를 배격하고 북

25) 김광운, 『통일독립현대사: 권태양의 생애와 시대 이야기』 (서울: 지성사, 1995), 193쪽.

26) <로동신문> 1986. 4. 19에 보도된 김종항·안우생의 남북연석회의 회고기사; <로동신문> 1997. 5. 26에 보도된 성시백 관련 기사; 김광운, 앞의 책, 193쪽.

27) 유영구, 앞의 글, 650-651, 653쪽; 대검찰청조사국, 『좌익사건실록』 제2권(서울: 대검찰청조사국, 1965), 548-555쪽.

28) <로동신문> 1997. 5. 26에 보도된 성시백 관련 기사.

조선의 김일성 위원장에게 남북총선거를 제의하면 남북을 통한 총선거가 가능합니다. 김일성 위원장은 독립운동 경력이 짧아서 김구 주석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김구는 이러한 서영해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남북협상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있다.²⁹⁾

서영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7월 남한의 남북협상파들이 결성한 통일독립추진회(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의 유엔총회 파견 대표단의 선발대로 파리에 갔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다음으로, 포섭된 남한 정치인들을 통한 공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로당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통해 김구·김규식을 남북협상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을 전개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미 포섭해놓은 남한 정치인들을 북으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김구·김규식을 남북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북로당이 북으로 불러간 남한 중간과 정당 소속 정치인들로는 홍명희, 백남운, 김원봉(인민공화당 위원장), 박건웅(민족자유연맹 간부) 등을 들 수 있다.³⁰⁾ 이들 가운데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친 인사는 홍명희와 백남운이다.

홍명희는 1988년 충청북도 괴산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출생했다. 홍명희는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1920년대 후반에는 시대일보 사장과 신간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일제하 최대의 장편소설 『임꺽정』의 작가이기도 하다. 홍명희는 1946년 3월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등 북한공산당 지도부와 회담했으며, 이후 북한공산당의 협조자가 되었다.

홍명희는 1947년 11월 중순 세 번째로 평양을 비밀 방문하여 김일성 등 북한정권 지도부로부터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남북협상 추진에 홍명희가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³¹⁾ 평양에서 돌아온 홍명희는 근민당과 민독당, 그리고 한독당의 조소앙 계가 주도하고 있는 중간과 정당들의 연합체인 정당협의회 활동을 강화하면서, 정당협의회의 외군철수와 남북협상 개최 주장을 지원했다. 동시에 중간과 정당 단체들의 통일전선 조직인 민족자유연맹의 결성에 적극 참여했다. 민련은 1947년 12월 20일 결성되었으며, 민련의 위원장엔 김규식이 선임되고, 홍명희는 5명의 부위원장 중 1인으로 선임되었다.³²⁾

이처럼 중간과 정당 단체들을 남한정부수립반대-남북협상지지 궤도로 동원하는 조직적 틀을 확립한 데 이어 홍명희는 1948년 새해 벽두부터 김구 김규식 등 우익진영 및 중도우파 지도자들을 만나서 ‘남북의 정당지도자들이 만나 구국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남북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득했다.³³⁾

성시백의 공작으로 인해 이미 측근들로부터 남북협상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있었던 김구와 김규식에게 이러한 홍명희의 설득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³⁴⁾ 홍명희가 북한정권에 포섭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김구나 김규식은 홍명희가 일제하 국내에 활동하던 지식인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친일경력이 전무한 점을 높이 사서 홍명희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 홍명희는 남북협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1948년 4월 10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평양회의가 끝난 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다가 북한정권

29) 조규하 등, 『남북의 대화』 (서울: 고려원, 1987)357-358쪽.

3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서울: 중앙일보사, 1993), 299쪽.

31)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220-221쪽.

32) 양동안, 앞의 글, 233-234쪽;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서울: 현음사, 2001), 455-456쪽.

33)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221쪽.

34) 심지연, 『산정에 배를 매고』 (서울: 개마서원, 1998), 110쪽.

에서 부수상까지 역임했다.

백남운은 1985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했다. 일본 유학시절 맑스주의 경제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해방직후에는 조선학술원을 설립하고 그 원장을 맡았고, 1945년에는 미군정에 의해 경성대학(서울대학교 전신) 법문학부 재정학교수로 임명되었다.

백남운은 북한정권에 제일 먼저 포섭된 남한의 지도자급 정치인이다. 그는 1946년 1월 25일 경에 평양을 처음으로 비밀 방문했는데,³⁵⁾ 이는 여운형이 처음으로 평양을 비밀 방문한 1946년 2월 10일보다 보름 정도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백남운은 첫 번째 평양방문에서 김일성 등 북한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남한의 학자와 문화인들을 북한으로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과 백남운이 서울에서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를 결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받았다. 백남운은 서울로 귀환한 후 1946년 2월부터 서울에 있던 인문·사회과학자와 자연과학자 및 예술인들을 북한으로 빼돌리는 작업을 전개했으며, 같은 달 5일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³⁶⁾

백남운은 1947년 12월 초와 1948년 2월말에도 평양을 비밀리에 다녀왔다. 남한정부수립 반대투쟁 및 남북협상추진과 관련된 북한정권 지도부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문헌은 김일성이 1947년 12월 무렵 ‘남한에서 온 한 혁명가’를 만나서 이승만 김성수 등 ‘극소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남조선의 애국적인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남북 연석회의의 소집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북로당의 남북 연석회의의 소집방침을 지지하고 나서게 될 때 북한정권은 남북 연석회의의 소집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³⁷⁾

백남운은 이처럼 평양을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남북협상을 위한 중간과 정당들의 행동통일 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중간과 연합조직으로 김규식을 에워싸서 김규식으로 하여금 결국 남북협상에 동조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또한 백남운은 양김과 북한정권 간의 연결을 지원했다. 백남운은 김일성과 김두봉의 서한을 김구와 김규식에 전달하는 ‘배달부’ 역할과 남북협상에 관한 김일성·김두봉의 뜻을 김구·김규식에게 해설해주는 역할도 수행했다.³⁸⁾

백남운은 평양회의에 참석하는 남한 정치인의 선두주자가 되어 1948년 4월 6일 평양에 도착했다. 그것이 그의 열두 번째의 평양방문이었다. 백남운은 평양의 남북협상회의가 끝난 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했으며, 북한정권에서 교육상, 최고인민회의의장 등을 역임했다.

끝으로, 북로동당 프락치를 통한 공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공간에서 북로당이 남한에 파견한 공작원이나 북로당과 연결된 비중 있는 남한 좌익인사를 남한 좌익진영에서는 ‘권위 있는 선’이라고 불렀으며, 그 ‘권위 있는 선’은 성시백선, 이정윤선, 서중석선, 한인식선, 이영선 등이었다.³⁹⁾ 이들 ‘권위 있는 선’들은 제각기 중간과 진영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의 구성원들을 포섭하여 포섭된 자들을 자기들의 프락치로 활용했다. 이러한 남·북로동당

3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92, 187쪽.

36) 위의 책, 188-192쪽.

37) 정리근, 앞의 책, 28-29쪽.

38) 백남운은 1948년 3월 25일 밤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 방송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담은 김일성 김두봉 공동명의로 김구 김규식에게 보내는 서한을 김규식에게 전달했다. 그의 측근인 최백근이 평양으로부터 그 서한을 가져왔으며, 백남운은 이 서한을 번복까지 해가면서 김규식에게 전달했다. 백남운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남한의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북한의 편지를 전달했다. 유영구, 앞의 글, 656-657쪽.

39) 高峻石, 『南朝鮮勞動黨史』(東京: 勤草書房, 1978), 156-157면.

의 프락치들이 중간과 정당 및 한독당에서 활동하여 그들 정당들로 하여금 남북협상을 제안하거나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남한 정계에서 미·소군의 조속 철수와 남북협상개최를 주장하는데 앞장선 것은 근민당이다. 근민당은 북로당 프락치들이 주도하는 정당이고 그 당의 위원장이 이미 북한정권에 포섭된 백남운이기 때문이었다. 근민당에 뒤이어 한독당이 남북협상을 제의했다. 한독당의 남북협상 제의는 조소앙이 이끄는 한독당 내 중간파와 한독당에 침투해 있는 남로당 프락치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조소앙과의 움직임은 성시백의 공작결과로 볼 수 있다. 조소앙의 비서 김흥권(삼균청년동맹 위원장)은 성시백의 하부 강병찬과 연결되었다.⁴⁰⁾ 조소앙에 대한 성시백의 포섭공작은 매우 깊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은 북한정권을 지휘한 소련군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비망록에 조소앙이 평양회의 종료 후 북한에 남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과, 평양에서 서울로 귀환하기 직전 김일성이 개별적으로 김구를 만났는데 뒤이어 조소앙을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의해 입증된다.⁴¹⁾ 조소앙은 평양회의 직후 입장이 크게 변화되었지만, 평양회의 참석 전에는 북로당의 공작선과 조소앙 간에 긴밀한 연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독당과 중간과 정당들은 세를 확대하여 1947년 11월 4일 정당협의회(약: 정협)발기회를 결성하고, 미·소양군 조기철수, 남북정당 대표자회의 구성 등을 촉구했다.⁴²⁾ 정당협의회는 순전히 남한에서 남북협상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문제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에 대응하여, 북로당은 11월 16~17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엔결의를 분쇄할 것과 그를 위해 남북의 정치세력을 연결하는 조직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남북연석회의의 기본 골격을 정했다. 그에 따라 남한 내 북로당 비선의 물밑 움직임이 속도를 더했고, 남한 중도·좌익진영의 지도자들이 38선을 들랑거렸다.⁴³⁾ 남한의 정협도 11월 17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한국문제결의를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남북분열을 초래하게 될 잘 못 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미·소군의 조속철수와 남북정당대표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⁴⁴⁾

북로당 프락치가 침투해있는 중간과 정당들은 김규식을 지도자로 추대하면서 새로운 중간과 연합체인 민족자주연맹(약: 민련)의 결성을 추진하고, 민족자주연맹으로 하여금 남북협상을 주장하게 만드는 활동을 전개했다. 홍명희와 백남운 등의 노력, 그리고 북한공작원 성시백에 연결된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47년 12월 20~21일 민련이 결성되었고, 이 결성대회에서 남한선거를 반대하고 ‘남북통일 중앙정부의 조속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정치단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민련의 입장이 천명되었다.⁴⁵⁾ 북로동당 프락치들의 영향에 따른 한독당 및 중간과 정당·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의 지도자인 김구·김규식을 남북협상에 참여하도록 작용하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 궤도에 끌어들이려는 이상과 같은 3방면에서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40) 유영구, 앞의 글, 651쪽.

41) 김국후, 앞의 책, 256쪽에 기술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4월 5일자와 274쪽에 기술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5월 3일자.

42) <서울신문> 1947. 11. 6.

43)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310-311쪽.

44) <조선일보> 1947. 11. 19.

45) <한성일보> 1946. 12. 21.

하고 양김은 1947년 12월 20일까지는 남북협상에 동조하지 않았다.

김구는 1948년 12월 중순까지 유엔총회결의를 지지하고 소련이 제안한 미·소군 조기철수나 남북협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 그는 한독당이 정협에 참가하여 유엔총회결의를 비판하고 미·소군 조기철수와 남북협상을 촉구하는 것을 강력히 견제했다. 김구는 1948년 11월 19일 한독당 당무회의에서 한독당의 정협 참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김구는 또 12월 초 유엔총회의 한국문제결의와 이승만의 정부수립노선을 지지하는 성명을 거듭 발표하면서 우익진영 통합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러한 김구의 노선에 따라 한독당은 김구의 지시를 어기고 정협에 계속 참가한 한독당 중도파 중간 간부들을 남로당의 자금을 받고 한독당 분열공작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제명했으며, 그 여파로 한독당 내에서 남북협상 주장을 주도해온 중도파 지도자 조소앙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⁴⁶⁾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 결성 과정에서 유엔결의를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민련 참여를 봉쇄하려 했다. 김규식은 민련이 결성되기 1주일 전까지도 소련의 미·소군 조속철수론에 반대하고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남북한 총선을 실시할 것을 지지했으며, 설사 소련의 반대로 인해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어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그 정부는 남한의 단독정부가 아니라 한민족의 중앙정부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⁴⁷⁾

김구·김규식의 이러한 입장은 1948년 12월 하순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규식은 1947년 12월 20일 자기를 지도자로 추대하여 결성된 중간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민련이 미·소군 조속철수, 남한선거 반대, 남북협상 추진 등을 천명했을 때 그에 반대하지 않았다. 김구는 12월 22일 돌연 이승만의 남한선거노선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익진영으로부터 이탈했다.⁴⁸⁾ 김구의 이러한 행동은 중간파 정당들의 남북협상 추진을 제동해온 제동력이 해소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남북협상 추진에 대한 김구의 참여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북한정권은 12월 하순부터 남북협상에 김구와 김규식을 끌어들이는 공작을 한층 강화했다. 북로당은 1947년 12월 23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한 내 단선단정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치사업의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했다. 그에 따라 북로당은 12월말부터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대남연락부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에서 공작활동을 전개 중인 성시백의 간첩망도 강화했다.⁴⁹⁾

이러한 공작을 배경으로 김일성은 1948년 1월 중순 남북 연석회의의 소집을 제안하는 편지를 성시백 등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남한의 김구·김규식과 정당·사회단체 등에 보냈다.⁵⁰⁾ 김일성과 김두봉 공동명의로 발송된 그 편지는 성시백 등 북로당 공작원들과 그에 포섭된 남한 인사들에 의해 전달되었으며, 이 비밀편지는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하순 유엔위원단과 면담하기 전 김규식과 김구는 협의하여 두 사람이 위원단에 제출할 제의 내용을 조정했다.⁵¹⁾ 그러한

46) 양동안, 「1945~49년 기간에 있어서 김구와 그의 추종세력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10집(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58쪽.

47) <서울신문> 1947. 12. 14.

48) 김구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 데에는 48년 1월에 방한하게 될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상대할 우익진영의 대표단(민족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김구세력을 소외시킨 점, 12월 초에 발생한 한민당 중요간부 장덕수 암살사건의 배후조종자로 한민당이 김구를 의심하고 있는 점, 김구를 남북협상 그룹에 끌어들이려는 북로당과 남한 중간파 정당 지도자들의 포섭공작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4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313-314쪽.

50) 정리근, 앞의 책, 30쪽.

51)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8 vol. VI, (Washington D.C.:

조정을 통해 양김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의 면담에서 다 같이 남북협상을 제의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한 합의에 따라 양김은 48년 1월 하순 유엔위원단과의 면담 때 남한지역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북협상에 대한 양김의 지지 입장이 천명되자, 북로당은 1948년 2월 초순 남·북로동당 정치국 연석회의를 열고, 남북 제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소집문제를 토의 결정했으며, 남한에서 유엔위원단과 단선에 대한 반대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에서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가 끝나는 4월 중순에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⁵²⁾

남북협상 동조로 입장을 바꾼 양김은 한편으로는 남한 총선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북한의 김일성 및 김두봉과 접선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2월 16일 ‘남북정치지도자간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 수립과 새로운 민주정부 건설에 관한 방안을 토의하자’는 내용의 공동명의로 편지를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비밀리에 보냈다.⁵³⁾

4. 미군과 남한의 대북 정보활동 개요⁵⁴⁾

해방공간에서 남한 내 미군의 정보활동은 1945년 9월 9일 미 제24군단이 한국에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해방 후 남한을 점령한 미24군단은 예하에는 두 그룹의 정보활동부서가 있었다. 하나는 4개의 일반참모부(G-1, G-2, G-3, G-4) 중 정보참모부로 알려진 G-2였고, 다른 하나는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로 일컫는 방첩대였다. G-2와 CIC 간의 업무영역의 분계선은 명확하지 않았으나 윤곽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분되었다. G-2는 주로 남한 내에서의 정보수집 및 북한에서 월남한 인사들로부터의 북한정보 수집을 하는데 반해, CIC는 그보다 훨씬 광범한 영역의 활동을 전개했다. CIC는 남한 내에서의 정보수집, 남한 정치인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사찰(통신검열 등), 좌익인사들의 전향공작, 북한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이원적으로 정보활동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부서들의 활동은 체계적으로 지휘되지 못했고, 따라서 효율성도 낮았다. 남한 점령 미군의 정보활동이 체계적으로 지휘될 수 없었던 것은 우선 당시 미국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해외 정보·정치공작 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차 대전 종전 시까지 미국의 해외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군사정보기구인 전략첩보대(Office of Strategic Service, OSS)가 담당하고 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OSS의 개편 또는 해체를 추진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20일 투루먼(Harry Truman) 미국 대통령은 OSS책임자 도노반(William Donovan)을 해임하고 10일 이내에 OSS를 해산하라고 명령했다.⁵⁵⁾ OSS를 해산한 미국은 규모가 작고 평화시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했다. 1946년 1월 23일 트루먼 행정부는 전 해군 정보국의 부책임자였던 사우어스(Sydney Souers)소장을 책임자로 하는 중앙정보그룹(Central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p.1102.

52)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1 (서울: 선인, 2003), 594쪽.

53) 김구와 김규식은 자기들이 북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을 비밀에 붙였으나 후일 그에 관한 소문이 나돌자 3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밀리에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54) 이 논문의 4절과 5절은 국가정보학회의 2009년도 공동연구에 필자와 함께 참여했던 이완범 교수와 이상호 박사의 연구보고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55) Richard H. Smith, *OSS: The Secret History of America's First Central Intelligence Agency*(Guilford, CT: The Lyons Press, 2005), p. 34.

Intelligence Group, CIG)을 창설했다.⁵⁶⁾ 하지만 사우어스는 CIG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뒤이어 공군의 반덴버그(Hoyt Vandenberg)가 1946년 6월 중앙정보그룹의 두 번째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CIG 내에 해외 첩보와 파괴 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활동국(Office of Special Operations)을 설립하는 등 조직 강화를 위해 주력했다. 그러나 반덴버그 역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앙정보그룹을 이끌었고, 1947년 7월 후임자에는 해군소장이던 힐렌코터(Roscoe Hillenkoetter)가 임명되었다.⁵⁷⁾ 미·소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해외첩보기구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의회는 1947년 7월 26일 미국은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⁵⁸⁾을 제정했으며,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와 국방부를 신설하였으며,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도 창설했다.⁵⁹⁾ 1947년 9월 18일 창설된 CIA는 미국 최초의 평화시 해외 정보·정치공작 기구로서 소련의 MGB에 대적한다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해외 정보·정치공작 활동 기구가 개편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 점령 미군의 정보활동 부서들은 체계적으로 지휘될 수 없었던 것이다. 남한 점령 미군 정보활동 부서들의 체계적 지휘를 방해하는 중요 요인이 또 하나 있었다. 그 요인은 주한미군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권위주의적 성격이었다. 맥아더는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외부 정보부대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었다. 2차대전 기간 중 남서태평양사령관으로서 맥아더는 OSS가 자기의 요원들을 맥아더의 관할 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맥아더의 태도는 2차 대전 종전 후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에서도 지속되었다. 종전 후 미국동군사령관 겸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직위에 있던 맥아더는 자기 관할지역에서 미 중앙정보국이나 국무부 정보국 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했다.

맥아더는 자신이 관할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관련 정보 수집은 자신의 정보참모 윌로우비(Charles Willoughby)⁶⁰⁾가 이끄는 극동군 사령부의 G-2가 관장하도록 했다.⁶¹⁾ 윌로우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맥아더사령부의 정보참모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왔었다. 맥아더는 필리핀에서 일본의 공격을 받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철수한 후, 1942년 6월 그곳에서 남서태평양사령부를 조직하고 휘하에 정보부대를 정비하였다. 윌로우비의 통제 하에, 향후 작전지역에 대한 정보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했다. 이때 맥아더 사령부는 연합번역통신부(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를 설립하여 포로 심문과 노획문서의 번역 및

56) Ibid., p. 42.

57) Ibid., p. 57.

58) 한희원, 『국가정보: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서울: 법률출판사, 2008), 143쪽.

59) 위의 책, 59쪽.

60) 윌로우비(Charles A. Willoughby, 1892~1972)는 1892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0년 미국으로 이민했고, 그해 미군에 입대했다. 원래 본명은 아돌프 바인덴바흐(Adolphe C. Weidenbach)였고, 1916년 윌로우비로 개명했다. 1차 세계대전에 1사단에 소속되어 프랑스 전선에 참전했고, 멕시코 국경지대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근무했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에서 군사사절단을 역임했다. 1929년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Fort Benning)에서 보병학교를 졸업했고, 1931년 캔사스의 포트 레벤워스(Fort Leavenworth)에서 지휘참모대학을 졸업했다. 맥아더와의 첫 만남은 지휘참모대학에서였다. 1940년에 윌로우비는 맥아더의 군사참모로 선발되어, 필리핀에서 맥아더의 정보참모로 근무했다. 태평양 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정보참모와 전쟁 이후 연합군최고사령부, 극동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에서 정보관계 업무를 담당했다. 1951년 4월 맥아더의 해임과 함께 군직을 벗은 그는 맥아더사령부에 대한 몇 편의 책을 저술했고, 1972년 플로리다에서 사망했다. Spencer C. Tucker, Editor,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Santa Barbara: ABC-CLIO, 2000), pp. 739-740.

61)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1945~1951」(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27쪽.

출판을 담당했다. 이 산하에 연합정보국(Allied Intelligence Bureau, AIB)과 연합지리국(Allied Geographical Section, AGS)을 두어 정보 획득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다.⁶²⁾ 월로비는 2차대전 기간 중의 관행의 연장선 상에서 2차대전 종전 후에도 맥아더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의 정보활동을 독점적으로 지휘하려 했으며, 강력한 해외 정보활동 기구인 CIA가 설치된 후에도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보활동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지속하려 했다. 맥아더 사령부는 자기들의 휘하에 있는 남한 점령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한반도의 군사정보에 관한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설치된 주한미연락장교단(Korean Liaison Office, KLO)도 월로비의 아이디어에 따라 조직된 것이다.⁶³⁾

이처럼 맥아더 사령부가 관할 지역 내에서의 다른 정보기구들의 활동을 제약·방해하고 있었으므로 남한 점령 미군의 정보활동 부서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체계적으로 지휘되기 어려웠다.

이처럼 상부로부터 체계적인 지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대북활동을 담당하는 주된 부서인 CIC는 미군 진주 초기 부대편성에 분주했다. CIC는 제224 CIC과견대(The 224th CIC Detachment)가 1945년 9월 9일 24군 사령부와 함께 서울에 왔다. 이 과견대의 소속 요원 대부분은 태평양전쟁 당시 리이테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었다. 제224 CIC과견대는 CIC 내의 전투부대분견대(combat unit detachment), 수도부대(metropolitan unit), 지역부대(area unit) 등과 함께 활동했다. 이들 각 과견대는 도쿄의 제441 CIC 과견대의 통제 아래 있었다. 1946년 2월부터 서울의 제224 CIC과견대가 남한주둔 모든 CIC과견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조정되었으며 그 해 4월 모든 CIC과견대가 제971 CIC과견대로 통합되었다. 이때부터 CIC의 남한에서의 활동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CIC의 대북정보활동의 실상은 현재까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1948년 12월 부대는 공식 철수했으나 그 요원 상당수는 그대로 남아 KLO와 미국동공군의 대북 첩보기관인 미공군 인간첩보부대(USAF HUMINT)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주한미군은 미군정청을 만들어 남한을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한에는 한국인의 독자적 행정기관이 수립되지 않아서 대북 정보·정치공작을 전개할 한국인의 공적 기관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남한 한국인의 대북정보활동은 한국인들의 비밀 민간조직이 미군의 정보활동부서와 연결되어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외모와 위험성 때문에 미국인이 직접 나설 수 없었던 탓으로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한 후 그에 반발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출신 반공청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서 백의사라는 민간 비밀조직과 CIC가 연결되었다.

북한에는 북조선공산당→북조선노동당이라는 집권당이 있어서 정당 차원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정치공작 활동을 전개했으나, 남한에는 집권당이 존재하지 않아서 정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정치공작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한 정보·정치공작 활동의 잠재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우익진영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오히려 남로당과 북로당의 프락치에 침투 당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독당이 남·북로동당의 프락치에 침투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익진영의 강력한 반공 정당인 한민당마저도 남로당의 프락치에 침투 당해 있

62) D. Clayton James, *The Yers of MacArthur: Triumph and Disaster, 1941~1945*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p. 179.

63)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 93.

었다. 한 좌익인사의 회고에 의하면 한민당의 선전부 차장 김승원이 남로당의 프락치였다.⁶⁴⁾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정치공작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비미국인 활동주체는 민간인 비밀단체뿐이었으며, 그들이 CIC→CIA 등과 연결되어 대북 정보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CIC는 민간인 비밀단체를 통해 한국인 요원들(주로 북한에서 월남해온 반공의식이 강한 인사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훈련시켜 북한에 파견했다.

5. 대북 정보·공작활동 사례 분석: 백의사의 활동

CIC와 백의사의 연결은 그 동안 백의사의 단원을 자칭하는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알려져 왔을 뿐 미국 측 인사의 증언이나 문서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2001년 한국인학자들에 의해 ‘실리 보고서’가 발견됨으로써 양자 간의 연결이 미국 측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미국 제1군사령부 정보장교인 실리(George Cilley) 소령이 김구 암살 3일 뒤인 1949년 6월 29일 작성해 그 해 7월 1일 미 육군 일반 참모부 정보국장 앞으로 보낸 「김구: 암살에 관한 배후정보(Kim Koo: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assassination)」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군정이 백의사 요원들을 대북 첩보활동에 활용했으며,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CIC 요원이자 백의사의 단원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가장 악질적인(the most malignant) 인물은 염동진 혹은 일반적으로 '맹인장군(Blind General)'으로 알려진 한국인이다”라고 적고 있으며 염동진이 백의사를 통해 각종 첩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⁶⁵⁾ ‘실리 보고서’의 전체내용은 추후 다른 자료에 의해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보고서는 적어도 CIC가 백의사 단원들을 북한에 파견하여 대북정보활동에 이용했다는 점만은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다.

CIC와 백의사 간의 연결은 1946년 1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염응택은 신익희의 부름으로 낙산장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미군 CIC에 몸담고 있는 이순용을 소개받았다. 당시 백의사는 임시정부의 별도조직인 대한정치공작대(중앙본부장: 신익희)와 연결되어 있었다. 백의사는 대한정치공작대와 연결되어 정치공작대의 대북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치공작대는 주기적으로 행동대원을 북한지역에 파견했으며, 북파 대원들의 임무는 북한지역의 지도자 및 정당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북한지역에 임정을 지지하는 우익조직을 구성하는 것, 주요한 공공기관의 건물을 방화·파괴하고 민심을 혼란시키는 것, 북한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 등이었다.⁶⁶⁾ 정치공작대의 대북 활동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이 백의사 단원들이었다. 당시 백의사 단원들은 신익희가 장악하고 있던 낙산장(駱山莊)에서 정보수집 요령과 지하활동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뒤 북한에 파견되었다.⁶⁷⁾ 그들의 북한에서의 활동 중 많이 알려진 것은 북한의 요인들에 대한 테러이다. 백의사

64) 심지연, 앞의 책, 107-109쪽.

65) 정병준, “공작원 안두희와 그의 시대,” 『역사비평』 통권69호 (2004년 겨울), 142-171쪽; “김구 암살 관련 미 정보문건 전문(번역), “백의사와 CIC, 염응택, 그리고 백범,” 『연합뉴스』, 2001년 9월 4일.

66) 安東學人, “申翼熙氏와 政治工作隊,” 『新世紀』 제2권 1호 (1949년 4월); 강준식, “신익희는 우익쿠데타를 기도했었다,” 『다리』 통권29호 (1990년 3월), 262-271쪽;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78쪽.

67) 최규봉에 따르면 극우무장청년단체 養虎團의 본부가 낙산장이었다고 한다. 지하단체 양호단의 단장은 김성(속칭 김별)장군이었는데 그가 1946년 1월 16일 사망하자 최규봉과 5명의 단원들은 백의사에 흡수되었다. “제1부 KLO 참전동지회 최규봉 회장 회고담,” 이창진, 『KLO의 한국전 비사: KLO, 켈로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가?』 (서울: 지성사, 2005), 32쪽;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40년대편』 1 (서울: 인물과

단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요인들에 대한 테러는 김일성, 강양욱, 최용건, 김책 등에 대한 테러(암살미수) 등이다.⁶⁸⁾ 백의사 단원들에 의한 김일성 암살미수 사건은 1946년 3월 1일 평양역 앞 광장에서 실행되었다. 백의사 단원은 평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3·1절 기념행사에서 김일성을 암살을 목적으로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김일성의 암살에 실패했다. 김일성 암살이 실패한 후 백의사 단원들은 강양욱, 최용건, 김책 등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순용은 재미교포로 미군에 입대하여 2차대전에 참여했으며, 남한에 파견된 CIC부대 소속 중사였다. 이순용은 훗날 이승만 정권 아래서 내무부장관에 기용된 바 있다. 당시 이순용이 낙산장을 찾아간 것은 신익희에게 대한정치공작대를 해체하라는 하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순용은 하지의 통고를 전하면서 만일 정치공작대가 대북 정보를 CIC에 제공하면 해체를 재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순용의 전언에 신익희가 화를 내고 나가버리자 신익희의 측근인 조중서가 북한 관련 정보를 CIC에 제공하는 역할을 백의사가 맡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이순용과 백의사 총사령 염응택이 가까워졌고 그에 따라 백의사와 CIC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후 이순용은 백의사 총사령 염응택을 자기의 상사인 CIC 서울지구 대장 위테커 소령에게 소개했고, 위테커는 궁정동 백의사 본부를 찾아와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백의사 활동을 비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위테커-염응택 선이 CIC-백의사의 주 채널이 되었다. 위테커는 염응택과의 약속에 따라 북한에 파견할 첩보원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고 재정지원도 제공했다. 북과 백의사 단원들의 훈련장소는 위테커의 도움으로 마련한 정릉 골짜기의 외딴집이었다. 일본인 부호의 별장으로 쓰이던 그 저택은 이후 백의사의 한 아지트로 이용된다. 저택 주변이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은밀한 활동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이 집은 9:28 수복후 국군 HID 유격대의 비밀훈련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CIC-백의사 연결 채널의 백의사 측 주인공인 백의사 총사령 염응택(廉應澤: 일명 염동진, 본명 염동연)⁶⁹⁾은 1902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일제시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1934년 장개석 지도아래 있던 남경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에 입교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한인반 사관 후보생들에게 매달 11원씩을 지급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어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염응택도 이 폭동에 가담했다가 남경에 있던 신익희에게 피신했다. 신익희는 염응택의 이름을 요춘택이라는 중국이름으로 변성명하게 한 뒤 중국군의 남경 헌병사령부 우편물 검사처의 일자리를 얻어주었다. 여기서 얼마동안 일하다가 염응택은 장개석 직속의 특무기관인 남의사로 자리를 옮겼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정보수집과 양동작전을 담당했던 기구)에는 남의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염응택은 이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첩보공작을 위해 만주에 밀파됐다

사상사, 2004), 215쪽.

68)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79쪽;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40년대편』 1 (서울: 인물과사상사, 2004), 215쪽; 이영신, 『비밀결사 白衣社: 이영신의 현대사 발굴』 上 (서울: 알림프, 1993), 258쪽.

69) “京高特秘 第3210號 金九 一黨의 愛國團員 檢舉에 關한 件,” 최서면 제공자료, 안기석, “인물연구: 白衣社 총사령 염동진, 金日成 간담 서늘게 한 전설적 백색 테러리스트,” 『신동아』 통권 505호 (2001년 10월), 316-323쪽. 위 자료는 1935년 12월10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경성지방법원장, 상해총영사, 남경총영사 등에게 보낸 극비정보 보고서로서 중국의 남경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반 사관후보생들의 인적 사항과 동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낙양분교 제1기 졸업생으로서 ‘김구 일당의 애국단원’으로 체포된 엄창복(嚴昌福, 당시 24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내부인으로 낙양분교 한인반 사관후보생 92명의 신상을 소상하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일본군 관동군 헌병대에 체포됐다. 염응택은 관동군 헌병대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후 관동군 정보기관의 첩보원이 되었다. 염응택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점차 시력이 약화되었다. 시력을 잃어가던 염응택은 치료를 위해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 받았다. 염응택은 일제 지배 말기인 1944년 8월 평양에서 비밀 독립운동 단체인 대동단을 조직했다. 대동단은 해방 후 제2독립운동으로 반공운동을 할 것을 결정했으며,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평남도당 위원장이던 국내파 현준혁(玄俊赫)을 암살했다. 이 사건 후 염응택과 단원들은 남한으로 피신했다. 서울에 온 염응택은 대동단을 백의사로 개칭했다. 백의사(白衣社)라는 단체이름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반공 특무 지하공작 단체인 남의사(藍衣社)를 모방하여 작명한 것이다. 염응택은 신익희와 서울의 감부였던 오동진 등의 지원을 받아 백의사를 확대했다. 백의사의 대원들은 주로 북에서 월남한 청년·학생들이었다. 백의사는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 단원들을 파견하여 북한의 요인들에 대한 테러 활동을 전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백의사의 그러한 의지와 CIC의 요원 북파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CIC의 부탁으로 백의사는 첩보원들을 훈련시켜 북한에 보냈다. 북한에 파견될 백의사 단원들은 염응택이 직접 선발했다. 염응택은 각 산하단체의 청년들 가운데서 북한에 파견될 단원들을 선발했는데 선발기준은 매우 엄격했다. 각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당지역의 사투리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이 조건에 따라 각도 출신자 중에서 선발됐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무장도 요구됐다. 반공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상태에서 체력 단련과 무술 훈련, 각종 무기를 다루는 기술 등을 반복하여 훈련받았다. 폭과술, 적진 침투와 탈출방법, 산악돌파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유격 훈련이 뒤따랐다. 소련제 각종 무기에 대한 식별법과 조작법도 가르쳤다. 미 CIC 교관들이 비밀리에 파견되어 훈련을 도와주었다.

백의사의 북파 공작원들은 2인 1조가 되어 활동했다. CIC가 그들에게 부여한 주된 임무는 군사관련 정보 수집이었다. 각 지역별로 주둔 부대의 배치 상황과 병력수, 그리고 각 부대별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귀환하라는 명령이었다. 소련으로부터의 무기 반입 현황을 알아내는 것도 주요 임무였다. 그러나 백의사의 북파 공작원들은 그러한 군사정보 수집 이외에 북한의 일반 정세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의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선전을 하기도 했다. 백의사 공작원들의 활동은 소련군에 의한 38선 봉쇄가 강화되면서 침체되었다. 북한에서 전개된 반공 유격대 활동도 백의사 첩보원들과 연계돼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좌우대립의 시대도 끝나자 백의사의 역할은 점차 축소됐다. 정부수립 후 직업이 있던 단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으나, 그렇지 못한 단원들은 실업상태에 있었다. 1949년 2월 한 인사가 염응택을 찾아와 맥아더 사령부 월로비 소장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라는 극비명령을 받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949년 6월 1일 맥아더 사령부의 한국연락사무소, 즉 KLO가 설치됐다고 한다. KLO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 실업상태에 있던 백의사 단원들을 대거 고용하여 대북 정보원으로 활용했는데 이들을 가리켜 속칭 ‘켈로(KLO) 부대원’이라고 했다. 백의사 단원 및 기타 이북출신 청년들이 중심이 된 이 부대는 6·25전쟁기간 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대북정보활동을 전개했다.⁷⁰⁾

70) “제1부 KLO 참전동지회 최규봉 회장 회고담,” 이창건, 『KLO의 한국전 비사: KLO, 켈로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가?』 (서울: 지성사, 2005), 32-36쪽.

6. 비교

해방공간에서 전개된 소련군·북한 측의 정보·정치공작 활동과 미군·남한 측의 정보·정치공작 활동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소련군·북한 측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담당 기구는 잘 정비되고 통일적으로 지휘된 데 반해, 미군·남한 측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담당 기구는 정비되지 못하고 통일적으로 지휘되지 못했다.

소련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기구는 볼셰비키 혁명 직후부터 발전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더하여 민간과 군을 망라하여 MGB가 국가의 모든 정보·정치공작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소련은 북한에서도 점령과 동시에 MGB조선파견대를 구성하여 정보·정치공작 활동을 개시했으며, 이 MGB조선파견대가 발전하여 북한 정권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부서들이 되었다. 그리고 소련군·북한 측의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소련군→김일성→당·정·군의 정보·정치공작 부서 책임자로 통일적으로 지휘되었다.

그에 반해 미국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기구는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조직되었던 OSS는 제2차 대전종전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OSS 해체 후 미국의 국가 정보 기구는 CIG(1946년 1월 창설)를 거쳐 CIA(1947년 9월 창설)로 변경되었다. 국가의 대외 정보·정치공작 기구가 이처럼 요동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점령한 미군의 정보·정치공작 부대 역시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없었고, 그 지휘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한 미군의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CIC와 G-2가 나누어서 담당했고,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동경 주재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OSS, CIG, CIA 등의 활동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남한을 점령 통치하는 미군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부대들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다. 그에 더하여, 당시 남한에는 한국인의 독자적인 행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행정부 내의 대북 정보·정치공작 활동 부서를 만들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미군의 대북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백의사와 같은 남한의 민간인 비밀 반공결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소련군·북한 측의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범위가 매우 광범한 데 반해 미군·남한 측의 정보·정치공작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되었다.

소련군·북한 측의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 범위는 단기 정보수집, 테러, 장기 포섭 배치, 관료기구 침투, 폭동과 게릴라투쟁 지휘 등 매우 광범했다. 그에 반해 미군·남한 측의 대북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단기 정보수집에 그쳤다. 초기에는 북한 요인들에 대한 테러도 전개했으나 테러활동은 머지않아 중단되었다. 양측 간의 이러한 차이는 당시의 남북한 사회상황의 차이와 관련된다. 당시 북한은 독재적으로 통치되었고, 1946년 봄 이후 반동분자·친일파 숙청이라는 명분하에 공산독재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지속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에 미군·남한 측의 공작원이 북한에서 협조자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작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에 반해 당시 남한에서는 정치·사회적 자유가 크게 보장되었고, 공산주의 동조자에 대한 숙청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때문에 남한에서는 좌익성향 인구가 상당히 큰 규모로 존재하여 소련·북한 측의 공작원이 협조를 확보하기가 용이했고 장기체류 공작이 쉬웠다.

셋째, 소련군·북한 측의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풍부한 공작금을 활용하면서 전개된 데 반해 미군·남한 측의 대북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풍부한 공작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

소련군·북한 측이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에 자금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북

남한에서의 비정상적인 화폐유통과 남한에서의 화폐유통에 관한 미군정의 무책임한 정책, 남북한 간의 기형적인 밀무역 때문이었다.

소련군은 북한 점령 직후인 1945년 9월 21일 소련군의 군표를 발행하여 일제하에서 발행된 조선은행권과 같이 통용시켰다. 소련군은 아무 규제 없이 군표를 발행하여 시중에서 조선은행권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선은행권은 남한에서의 공작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소련군과 북한정권은 1947년 12월 6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조선은행권을 회수하고 새로이 북조선중앙은행권을 발행했다. 조선은행권은 무조건 몰수하고 주민 1세대 당 최고 500원의 북조선중앙은행권을 일률적으로 나눠주었다. 이러한 약탈적 화폐개혁으로 회수한 조선은행권의 액수는 엄청난 거액이었으며, 30억원에 달했다는 설도 있다.⁷¹⁾ 북한은 이러한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런 사실이 남한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라디오 방송으로는 보도하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1948년 4월까지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제하에서 발행된 조선은행권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 남한의 미군정(남조선과도정부)은 1948년 4월에 이르러서야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일제하에서 발행된 조선은행권을 유통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로부터 약탈한 화폐를 남한에서 4개월 동안이나 통용시켰으니, 그 4개월 동안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로부터 약탈한 조선은행권을 남한으로 대량 밀반입하였다.⁷²⁾ 해방공간에서 북한으로부터 밀반입된 조선은행권으로 매입해둔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이 훗날까지 남한 내 북한 고정간첩들의 공작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다.

해방공간에서 남북한 간에는 밀무역이 행해졌는데, 이 밀무역은 북한 정권을 대리한 북한의 업자와 북한 업자가 선택한 남한의 무역업자 간에 행해졌다. 북한의 무역업자에게 선택된 남한의 무역업자는 남한 내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이거나 친북 인사에게 협조하는 인사일 수밖에 없다. 때로는 남파된 북한 공작원이나 그들에게 포섭된 고정간첩이 남북무역상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밀무역에서 얻어진 남한 무역업자의 이익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의 공작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에 반해, 미군은 주한미군의 예산 내에서 대북 정보·정치공작 활동 자금을 사용해야 했고, 주한미군의 예산은 계속 감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활동에 공작금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차이로 인해, 해방공간에서 소련군·북한 측의 대남 정보·정치공작 활동은 미군·남한 측의 대북 정보·정치공작 활동에 대해 큰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군·북한 측의 우위는 한반도에서 미·소군이 철수하고 난 후 북한의 대남 정보·정치공작 역량이 남한의 대북 정보·정치공작 역량에 대해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끝>

71)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실록』 제1권, 427쪽.

72) 북한에서 몰수한 조선은행권이 남한에 대량 밀반입되었음을 시사해주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소련영사관원 세르게이 세묘노비치 슈딘이 북한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은행권 100만원으로 서울에서 다량의 귀금속과 물품을 매입한 사건(조선일보, 1948. 4. 6.), 남파된 북로당원과 남한의 연루자들이 북한에서 가져온 500만원의 조선은행권으로 납, 등사잉크, 생고무, 타이어, 금괴 등을 매입하여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철도경찰에 검거되어 물품과 조선은행권을 압수당한 사건(조선일보, 1948. 4. 7.), 남파된 북로당원이 북한에서 가져온 조선은행권 1.053만원으로 공작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철도경찰에 발각 체포되어 사용하고 남은 돈 조선은행권 715만3천원을 압수한 사건(조선일보, 1948. 4. 7.) 등이다.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실록』 제1권, 428-429쪽.